



뉴스레터

2025년 3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IFES



뉴스레터
30호(3월)
목차

연구활동

1. 특집 기사	03
2. 학술활동	05
3. 교수진 연구활동	10
4. IFES 브리프 및 포럼	12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14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18
2. 언론 속의 IFES	20
3. IFES 도서관	22
4. 예정사항	23
5. 안내사항	24

연구활동

특집 기사

학술활동

교수진 연구활동

IFES 브리프 및 포럼

북한·국제 정세 동향



1. 특집 기사

■ 국내 전문가(40명) 심층 설문조사 분석 결과

■ 대다수 전문가들 “북·미,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 기대 어렵다”고 전망

- “북·미 관계는 접촉이 재개되어도 실질적·가시적 성과 내기 쉽지 않고, 남북 관계는 구조적 문제로 북·미 관계와 무관하게 경색 국면 지속이 전망되어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월 5일(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정세 전망에 대해 전문가 40명의 심층 설문조사 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심층 설문조사는 ▲한국의 대외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남북관계 개선·발전과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40명에게 실시하였다.

한국의 대미, 대일 및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지 약화 예상(각각 39명(98%), 38명(95%), 38명(95%))이 우세한 반면, 대중 및 대러 관계에 대해서는 유지 개선 변화 전망(각각 33명(83%), 37명(93%))이 우세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과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무역 이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을 포함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로 인해 한미동맹도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또한 한·일 관계는 한국의 리더십 회복,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소극적인 중재 역할과 다자보다는 양자 방식을 선호하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한·미·일 협력과 더불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북·러 간 밀착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한·러 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때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러·우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및 NATO 4자가 동의하는 휴전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대중 및 대러 관계는 유지 강화 전망(각각 35명(88%), 34명(85%))이 우세한 반면, 대미 관

1. 특집 기사

계는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28명, 70%)이 우세했다. 이러한 결과는 러·우 전쟁, 중동사태, 미·중 전략적 경쟁과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을 원인으로 보았다.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러·우 전쟁 종결 여부 및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인식,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러·우 전쟁이 종결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면 북·러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북·중 관계는 북·미 간 대화·협상의 재개와 러·우 전쟁이 종결될 경우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설문의 관심 쟁점 중 하나가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슈였는데, 고도화 지속과 대미 협상 추진에 따른 해결 노력 의견이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위해 고도화 지속 추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대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을 지원하되, 한국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북관계 개선·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 간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소극적 역할 및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두 개 국가론에 따라 대적관계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24명, 60%)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남북한 간 협의를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정치·군사적 협의를 우선 추진 ▲남북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우선 상호 협력 가능한 다양한 분야와 사안을 적극 발굴해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현실적 상황과 정세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조정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불확실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정치적 혼란을 조속히 안정시켜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국가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 설문결과 분석자료 전문 보러가기



2. 학술활동

가. 『제75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월 4일(화) 오후 2시 정산홀에서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을 주제로 ‘제75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5개 소주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 ‘북한 정치: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전망’은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의 주제 발표와 정준희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곽길섭 대표는 당면해서 북한이 당창건 80주년과 9차 당대회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책 전환은 러-우 전쟁 휴전이 임박해질 시점부터 본격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곽 대표는 △‘적대적 2개 국가론’ 완전 정착 △러-우 전쟁 파병 성과 확대 △대미 탐색전 등이 2025년 북한의 전략·전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준희 연구위원은 2024년에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로부터 받은 정치적 유산을 정리,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도 강화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5년 북한은 노선 전환에 따른 불안정성이 점증되는 가운데 각 분야별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원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2세션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변화와 전망’은 정영철 서강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영철 교수는 남북한이 각자의 내부 정치적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임을 전제로 “일각에서 기대하는 남한에서의 새로운 정권 등장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 교수는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의 통일방안이나 정책은 이미 국민적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실효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한국 내부에서 ‘평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치·담론을 만들어가야 하며 정부는 기존 대북접근을 넘어서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정치·군사적인 접근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학술활동

김상범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해 군사 충돌 시 공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법적, 규범적 근거를 만들고, 국방력 강화와 군사동맹 체결을 통해 자신들의 국익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북한이 대화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의 빠른 정치적 안정 회복과 전쟁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기관리 능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세션 ‘북한 대외정책 ①: 트럼프 2기 출범과 북한의 대미전략 전망’은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노규덕 한라대 초빙교수(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상기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과 핵무력 강화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며 2025년 북미 대화·협상 및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우 전쟁 조기종전 문제와 연계된 북한의 파병 철회가 북미 대화의 첫 의제가 되고 그 대화가 양자 간 군비통제 협상을 견인 촉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규덕 교수는 “미북 양측은 이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견제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2019년 하노이 회담과 비교할 때 북한이 협상 주도권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노 교수는 미북 간 협상이 조기 추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4세션 ‘북한의 대외정책 ②: 북러관계 지속 및 변화 전망’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안경모 국방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두진호 연구위원은 북러가 공유하는 인식과 이익이 많아 푸틴-김정은 구도가 유지되는 한 북러관계가 공고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두 연구위원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미북 간 즉각적인 양자회담 복원보다는 러시아의 개입·미북관계 개선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경모 교수는 “북한 대외전략의 핵심은 강화된 북중연대를 지속·발전시키되 러시아와의 관계를 극적으로 강화해 북중러 삼각연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북방외교가 한미일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남방외교에 우선하여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5세션 ‘북한 경제: ’경제발전 5개년계획‘ 성과 평가 및 전망’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양문수 교수는 2024년 말에 개최된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경제분야에 대한 북한공식매체의 보도가 비교적 평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12개 중요 고지는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25년의 북한경제와 5개년계획은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 모두 다 적지 않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어 생산에서든 투자에서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5개년계획의 주요 목표는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북한당국은 2019년 말 당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성장’에서 ‘생존’으로 전환되었으며, 생존을 위해 중요했던 두 가지 여건으로 ‘식량’과 ‘자금’을 제기했다. 최 연구위원은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 혁명 강령’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며, 기존 제도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시장 거래 이익을 국가가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식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자금’은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북러 경제협력이 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전략포럼을 주최한 이관세 소장은 “2025년이 북한에게 있어서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김정은 집권 후 3번째 당대회인 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라고 설명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냉철한 상황 인식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 발표 토론자료 전문 보러가기



※ 전략포럼 YouTube영상 보러가기



2. 학술활동

나. '트럼프 정부 출범과 2025년 한반도 정세전망' 세미나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월 5일(수) 오전 10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과 2025년 한반도 정세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트럼프 시대 한미/북미관계’란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맡은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미국이 제재 해제, 관계 개선, 종전/평화선언, 주한미군 감축 등 새로운 북핵 논의 프레임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발표·토론에서 최소망 뉴스1 기자는 2025년 내 드라마틱한 북미 대화나 협상보다는 북미 간 ‘기 싸움’만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으며, 박수유 채널A 기자는 이같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라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다양화, 일상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용철 TBS 보도본부장은 북한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외 관계를 이끌어가며 두 국가론 실행으로 인한 극심한 대남 갈등과 단절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최우정 TV조선 기자는 북미정상 외교의 성사조건으로 △미국 정치권 내부 합의 △북한이 미국에 대한 힘의 대칭성 확보 △북미 공동의 적 상정 가능 여부를 지목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 김선향 학교법인 심연학원 이사장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북한대학원대 교수진, 북한대학원대 출신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정세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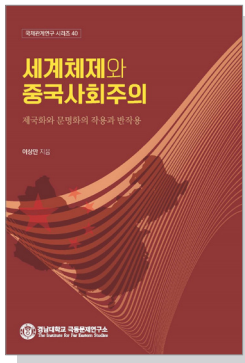


다. 연구서 발간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40

세계체제와 중국사회주의: 제국화와 문명화의 작용과 반작용

2025. 2. 10.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중국연구센터장)



중국의 역사는 '운명공동체'로서 중화와 주변의 관계로 형성되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 좌절과 함께 국가 건설의 소명을 받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왕도와 패도 중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다.

이에 본서는 세계체제와 천하체제의 관점에서 중국의 전통질서 담론과 중국사회주의의 성격을 분석해 중국공산혁명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나 민족해방운동으로 전개된 과정과 그 오류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중화제국'의 향방, 나아가 한중·북중관계의 미래까지 조망한다.

<목 차>

- 제1장 중국문명과 사회경제사관
- 제2장 세계체제와 중국사회주의 성격
- 제3장 중화제국의 전통질서 담론
- 제4장 신중화제국의 청사진 구조
- 제5장 천하체제의 성격과 위계질서
- 제6장 천하체제와 한반도: 한중·북중관계
- 제7장 갈무리

※ 국제관계연구서 전문 보러가기



3. 교수진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 1) KDI '북한경제리뷰' 논문 게재
- 일자: 2025. 2월말
- 내용: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경제분야 평가와 전망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최종현학술원 Trans Pacific Dialogue 토론
- 일자/장소: 2025. 2. 22.(토) / 미워싱턴 살라만더 호텔
- 내용: 왜 트럼프 신정부가 핵 협의 그룹을 강화해야 하는지 강조
- 2)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토론
- 일자/장소: 2025. 2. 23.(일) / 한국경제연구원 회의실
- 내용: 트럼프 신 행정부와 안보 경제협력 추진 방안 의견 제시
- 3) CSIS(미국 핵전문가 20인 대상) 특강
- 일자/장소: 2025. 2. 27.(목) / CSIS 회의실
- 내용: 왜 트럼프 신정부가 핵 협의 그룹을 강화해야 하는지 강조

나.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 1) KBS '뉴스광장' 인터뷰 (2025. 1. 30. 목)
- 내용: 트럼프가 좋다면 '북한 콘도'... '스몰딜'로 대화 물꼬 틀까
- 2) 연합뉴스 TV '뉴스1번지' 인터뷰 (2025. 2. 3. 월)
- 내용: 북한 '불량국' 언급 트럼프 정부 첫 비난...강경 대응 예고
- 3) MBN '평양돋보기' 인터뷰 (2025. 2. 5. 수)
- 내용: 북한군에게 '개죽이' '삼성폰' 발견...일각선 조작 가능성 제기
- 4) KBS '뉴스 7' 인터뷰 (2025. 2. 13. 목)
- 내용: 북한 '눈물의 상봉'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즉각 중단"

- 5) KBS '남북의 창(클로즈업 북한)' 출연 (2025. 2. 15. 토)
 - 내용: 매년 병원 20곳... 러시아 지원?
- 6) YTN '뉴스 6' 인터뷰 (2025. 2. 16. 일)
 - 내용: 국제기구로 간 '무인기 침투'...공방북한 속내는?
- 7) 중앙일보 인터뷰 (2025. 2. 20. 목)
 - 내용: 北, 호주의 美핵잠 도입 추진 비난..."관성적 반응 내놓으며 탐색전"

이상만 교수

- 1) 서울경제 인터뷰 (2025. 2. 19. 수)
 - 내용: 中여행 유튜브에 "공산당 돈 받나"...도넛은 혐중 음모론

조진구 교수

- 1) KBS 라디오 '열린토론' 출연 (2025. 2. 6. 목)
 - 내용: 한일수교 60주년으로 보는 '한일관계'
- 2) 채널A '이야기 더' 출연 (2025. 2. 13. 목)
 - 내용: 미 일정상회담 관련

김상범 교수

- 1) MBC 8시 뉴스테스크 '통일전망대' 인터뷰 (2025. 2. 8. 토)
 - 내용: "많은 해안선 있다"는 트럼프...일단 외면한 북한의 속내는?

이병철 교수

- 1) 중앙일보 인터뷰 (2025. 2. 14. 금)
 - 내용: 관세폭탄 뒤 첫 한·미, 한·미·일 고위급 협의...주말 '원헨 외교전' 불붙는다.
- 2) 신경제신문 칼럼 기고 (2025. 2. 24. 월)
 - 내용: 미국은 왜 한국의 계엄령 음모를 감지하지 못했나?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2025. 2. 3. 월)
 - 내용: '북핵, 비핵화가 정답이다'
- 3) 국군방송 '프리즘' 출연 (2025. 2. 23. 일)
 - 내용: 트럼프 신 행정부와 안보 경제협력 추진 방안 의견 제시

4. IFES 브리프 및 포럼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뉴스1 인터뷰 (2025. 2. 19. 수)
 - 내용: 북미, 팽팽한 신경전만...무르익지 않은 핵 협상
- 2) 관훈저널 기고 (2025. 2. 20. 목)
 - 내용: "다시 트럼프 시대를 맞는 한반도-트럼프와 김정은"

최영준 초빙교수

- 1) 경북도민일보 기고 (2025. 2. 10. 월)
 - 내용: '역사의 부정의(不正義)와 정치권의 의무'

4. IFES 브리프 및 포럼

가. IFES 브리프 (1건)

IFES브리프(요약)

미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5. 2. 10.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본연구센터장)

(개요) 2025년 2월 7일(미국시간, 백악관)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견지하고 폭력이 계속되며 혼란스러운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추구할 결의를 확인”하였다.

(주요내용) ① 평화를 위한 미일 협력: 이번 성명에서는 미일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를 초월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한 ‘초석(cornerstone)’이라고 규정함. ② 성장과 번영을 위한 미일 협력: 경제적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양국 간 비즈니스 기회의 촉진과 투자 및 고용의 대폭적 확대, 산업기반 강화, AI와 양자 컴퓨팅 및 첨단 반도체 등 중요 기술개발 협력, 강인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 조정 등에도 합의함. ③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일 연계: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결의를 표명함. ④ 일본방문 초청: 이시바 총리는 가까운 장래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함.

(평가와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외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 센카쿠열도의 미일안보조약 제5조 적용과 핵을 포함한 미국의 대일 확장억제 제공 확인, 경제안보를 포함한 미일 간의 경제협력, 미국과 일본이 인도,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 확인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자신이 전쟁을 막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교섭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미 있는 북미 간 교섭 재개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식 외교가 정책적 모순을 내재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의 재정적 보수파와 정부 지출 증대 요구 세력 간의 갈등 소지도 있어 트럼프의 현실 외교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과 어떠한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며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지 면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나. IFES 포럼 (1건)

IFES 포럼(요약)

The First Step President Trump has to take for North Korean Nukes: Strengthen the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2025. 2. 3.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前주미대사)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김정은, 조선인민군 창건 77주년 국방성 방문 연설 (조선중앙통신, 2. 8.)
 - 핵 강화 '새로운 계획사업' 및 러시아 지원 의지 천명
- 올해부터 '남북 항공 관제망 단절' 시도, 2024년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통보 (동아일보, 2. 13.)
-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조선중앙통신, 2. 16.)
 -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의 공개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 18.)
 - 미국의 '北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대해 "실천적·개념적으로 불가능·비현실적·황당무계"라고 평가,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
- 러시아 '국경절' 기념 평양 연회 개최 (조선중앙통신, 2. 21.)
 - 노광철 北 국방상 연설, 2024년 6월 김정은-푸틴 회담 계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전우관계로 승화 발전" 평가

미국 / 일본

- 미, 중국에 10% 관세 '발효'...멕시코·캐나다는 '한 달 유예' (KBS, 2. 4.)
- 마·필리핀, 남중국해서 합동훈련...트럼프 취임 후 처음 (연합뉴스, 2. 4.)
- 美전문가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파견 병력의 최대 50% 추정" (MBC, 2. 5.)

- 미일 정상회담 “북한 완전한 비핵화 위해 함께 노력”... “일본 방위비, 2027년까지 2배로” (KBS, 2. 8.)
- 이시바 총리, “다양한 형태로 북·미 접근 이뤄질 가능성” (경향신문, 2. 11.)
-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일률 관세”, 한국 면세 쿼터 3월 12일부 폐지 (연합뉴스, 2. 11.)
- 美 애틀랜틱 카운슬 ‘글로벌 예측 2025’ 설문결과 발표 (중앙일보, 2. 13.)
 - 세계 60개국 글로벌 전략가·전문가 357명 대상 실시
 - 향후 10년 내 한국 핵무장 예측 40.2% (2024년 25.4% 대비 14.8% 증가)
 - * 링크: Atlantic Council The Global Foresight 2025 survey
-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와 통화...“중전 협상 시작 합의” (동아일보, 2. 13.)
- 한·미 외교장관회담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원헨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2. 15.)
 - (한미 외교장관회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 우려 공유 △관세 정책 긴밀 협의, 상호 이익 해법 모색 △조선·원자력·에너지·첨단 기술 전략적 협력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3국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 재확인 △남북 국해 현상 변경 반대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지지 표명 △민주주의·주권·법치 존중 등 공동 원칙 재확인

중국 / 러시아

- 中 ‘트럼프 관세’에 WTO제소 등 상응조치 예고 (KBS, 2. 2.)
- 중국 “미국 상품에 10~15% 관세”...미 추가 관세에 ‘맞불’ (KBS, 2. 4.)
- 러 “미국과 군축 대화할 준비...긍정적 진전은 없어” (YTN, 2. 10.)
- 미·러, 6개월 만에 또 수감자 교환...“상호신뢰 증진 조치” (연합뉴스, 2. 12.)
- 미·러, 우크라이나 종전 위한 첫 고위급 회담 (연합뉴스, 2. 18.)
 - 우크라이나 종전 고위급 팀 운영 합의, 양국 대사관 인력 복원 및 대사 상호 파견 합의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1. IFES 동정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변동사항

○ 김상범 교수 (2025. 2. 7.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나. 최용환 신임 북한연구학회장 박재규 총장 예방

○ 일자/장소: 2025. 2. 12.(수) 10:00~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참석자: 박재규 경남대 총장, 최용환 북한연구학회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등

○ 내용: 박재규 총장은 1970년대 연구 1세대들의 노력이 현 학회의 기초가 되었다면서 연구자들 간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남북관계 소강 국면에서 학회 발전을 위해 힘쓰는 최용환 회장을 격려했다.

최용환 회장은 선배 연구진들의 열정적인 연구와 학문적 애정으로 인해 현재 후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이 북한연구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 연구진의 연구 성과들이 학회 회원들께 많은 학문적 영감을 주고 있다고 화답하였다.



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년 퇴임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월 13일(목) 16:30~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이상만 교수(중국연구센터장)의 정년 퇴임식을 개최했다.

퇴임식에는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박정진 서울부총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형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획홍보실장,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핵연구센터장,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모영환 행정실장 등 교수 및 행정 직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관세 소장은 그동안 수고하신 이상만 교수께 감사패와 꽃다발 등을 전달하고,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년퇴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장기간 한중관계 연구업무에 많은 업적과 연구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박정진 서울부총장도 한중관계에 많은 연구 학술 활동으로 연구소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한중간 가교 역할을 해준 점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이에 이상만 교수는 내가 희생해야 조직이 산다는 신념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정년퇴임하는 오늘날까지 열심히 한중관계 연구 업무에 전념했다면서, 향후에도 연구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2. 언론 속의 IFES

가. 제75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결과 언론보도 (2025. 2. 4.)

뉴스1,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신문, CNB뉴스, 아시아경제 등 16개 국내 언론사에서 『제75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北, '한미훈련'을 美 대화 의지 시험 요소로 삼을 것”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뉴스1) 최소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북한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3월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5차 통일전략포럼'에서 "북한은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의 수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여부를 미국의 대화 의지를 판단하는 첫 시험대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미 협상이 트럼프 1기 때와 다르게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와 비교해 북한이 협상 주도권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 관련 전문가(40명) 심층 설문조사 결과 언론보도 (2025. 2. 5.)

동아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연합뉴스, KBS, MBC 등 32개 국내 언론사에서 극동문제연구소가 실시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 관련 전문가(40명) 심층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보도했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70% “북미대화 성과 거두기 어려워”

(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5일 한반도 문제 연구자, 언론인, 전 외교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미협상 전망을 묻자 28명(70%)이 ‘미북간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 가시적·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협상이 재개돼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은 11명(27.5%)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 비핵화 관련 상당한 의견 차이 ▲러·우 전쟁, 중동사태, 중국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등을 북미대화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로 제시했다고 연구소 측은 전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 등 대내외 정세 변화를 보가면서 대남정책의 수위를 나름 조절하려 할 것’이란 답변이 27명(67.5%), ‘대적관계 차원의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란 답변이 13명(32.5%)이었다.

반면 한중관계는 좋아질 것(15명)이라는 응답이 악화(6명) 응답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전문가 집단은 연구 성향 등을 감안해 균등하게 모집됐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3. IFES 도서관

가. 도서관 설명회 개최

연구소 도서관은 북한대학원대 석박사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도서관 홍보영상(PPT)을 활용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만 여권이 넘는 북한원전 자료와 북한·통일관련 국내외 자료 및 연구 성과물, 국내저명 인사들의 기부자료, 연구소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도서관 이용 안내를 실시했다.



〈도서관 설명회 장면〉

○ 일시/장소: 2025. 2. 8. (토), 16:30~ / 천안상록리조트 회의실

○ 대상: 북한대학원대 석박사과정 신입생 40여명

나. 개방서가 운영 현황

연구소는 연중 매일 도서 나눔을 통해 연구자들이 북한·통일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2025.2월중 개방서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개방서가 운영 현황: 도서 기증 118권, 도서 나눔 123권



4. 예정사항

가. 제14차 삼청포럼 개최 (3. 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14차 삼청포럼

**트럼프 발 무역전쟁:
우리의 대응은?**

2025년 3월 6일(목) 19:00~20: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평화관 1층)

 **안 호 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 학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 주요경력 재장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주벨기에 EU 대사 / 외교통상부 제1차관 /
주미국 대사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사전접수 및 문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지원팀
bee49@kyungnam.ac.kr / 02-3700-0843
좌측 QR링크 신청서 작성
또는 E-mail로 [이름 / 소속 / 직위 / 연번*자] 제출 신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The Eastern Studies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https://ies.kyungnam.ac.kr

나. 『Asian Perspective』 (2025년 Winter) 발간 (3. 1.)

다. 『한국과 국제정치』 (2025년 봄 특집호) 발간 (3. 31.)

5. 안내사항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30,000원/일반회원: 50,000원/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